한국농어촌공사

보 도 자 료

Press Release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무인사처 조원득 계약부장(061-338-6101) / 제공일: 2021. 10. 7. (총 2매)

근로자 사망사고율 낮은 건설사, 농어촌공사 사업수주 유리해진다

○ 농어촌공사, 12일부터 건설재해 예방위해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2배 확대

○ 낙찰 건설사에 '안전시공 이행서약서' 제출받아 현장 안전관리 강화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(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)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.

○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.

○ 이를 위해 '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'과 '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'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된다.

○ 개정안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.2점~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.4점~2점으로 상향한다.

□ 또한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'안전시공 이행서약서'를 제출받아,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해당 내용이 적용된 '공사입찰특별유의서' 개정안 역시 12일 시행된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(www.ekr.or.kr)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써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”이라며 “한국농어촌공사는 ESG경영의 중점 분야인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